

<i>knock up</i>	get a woman pregnant	get someone to answer
<i>nelly</i>	cheeky	nervous
<i>pants</i>	trousers	underpants
<i>pavement</i>	road surface	pedestrian path
<i>school</i>	any educational institution	primary and secondary levels only
<i>smart</i>	intelligent	intelligent, groomed

다음에 열거한 어휘들은 일정한 문맥에서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영어에 쓰이는 많은 개념이 영국에서도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

(20)

AE	SBE	AE	SBE
alumnus	graduate	change purse	purse
apartment	flat	check(mark)	tick
attorney	solicitor/barrister	checkers	draughts
automobile	motor car	closet	cupboard
baby buggy/carriage pram	pram	couch	sofa
ballpoint	biro	cracker	biscuit(savoury)
bar	pub	crib	cot
billboard	hoarding	custard	egg custard
biscuit	scone	davenport	sofa
broil	grill	dessert	sweet/pudding
buffet	sideboard	detour	division
cab	taxi	diaper	nappy
call(phone)	ring	dish towel	tea towel
call collect	reverse the charges	drug store	chemist
can	tin	elevator	lift
can	tin	fall	autumn
candy	sweets	faucet	tap

fender	wing/mudguard	pullman car	sleeping car
first floor	ground floor	purse	handbag
flashlight	torch	railroad	railway
garbage	rubbish	raise(salary)	rise
garter	suspender	realtor	estate agent
gas	petrol	schedule	timetable
gear shift	gear lever	second floor	first floor
hood(car)	bonnet	shorts(men)	underpants, shorts
intersection	crossroads	sick	ill
janitor	caretaker	sidewalk	pavement
jelly	jam	sneakers	plimsolls, trainers
lawyer	solicitor/barrister	sophomore	second-year student
line	queue	spigot	tap(outdoors)
math	maths	station wagon	estate car
movie	film	suspenders	braces
movies	cinema	term paper	essay(school)
outlet	point	thread	cotton
outlet	point(power)	transportation	transport
overalls	dungarees	trash	rubbish
overpass	flyover	trashcan	dustbin
pacifier	dummy	trunk(car)	boot
pants	trousers	underpants	knickers/pants
pantyhose	tights	undershirt	vest
pitcher	jug	windshield	windscreen
patato chips	crisps	yield(road sign)	give way
public school	state school	zero	nought

참고문헌

Baugh, Albert C. & Thomas Cable(1978), *A History of the English*

비표준철자(non-standard spellings)도 미국영어에서는 광고·상점 간판·도로 표지 등에 쓰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donuts	hi/lo	tonite	thru	thruway	kool	xing
doughnuts	high/low	tonight	through	throughway	cool	crossing

5.2.3. 문법(관용어구)

문법은 어휘에 비해 영미영어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사소한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 미국영어의 영향으로 현대 미국영어에만 쓰이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영국영어에서도 종종 쓰이는 예가 있다. 다음에 명사·대명사·동사·전치사·관사·형용사·부사 등 품사와 관련된 것들과 관용어구의 차이를 비교해서 나타내도록 한다.

SBE

twenty to four

five past eight

River Thames

really good

different to/from

behind the building

half an hour

in future

I burnt it

he's got off the chair

I sneaked our quietly

I'd like you to go now

I'm visiting her tomorrow

I'll go and get the car

AE

twenty of four

five after eight

Hudson River

real good

different than/from

in back of the building

a half hour

in the future

I burned it

he's gotten off the chair

I snuck our quietly

I'd like for you to go now

I'm visiting with her tomorrow

I'll go get the car

Come and take a look

I've just eaten

I asked him to leave

The government is/are stupid

I want to get out

They've one innings left(*cricket*)

There were six millions

He's in hospital

I've not seen it yet

I'll see you at the weekend

Look out of the window

I'll go in a moment

I haven't seen her for ages

On Mondays we take the bus

I'll start on March 1st

Come take a look

I just ate

I asked that he leave

The government is stupid

I want out

They've one inning left(*baseball*)

There were six million

He's in the hospital

I didn't see it yet

I'll see you over the weekend

Look out the window

I'll go momentarily

I haven't seen her in ages

Mondays we take the bus

I'll start March 1st

5.2.4. 어휘

영국영어와 미국영어간의 어휘상의 차이는 의외로 크다. 이런 차이는 지형적 차이와 생활여건의 차이에서 온 것으로서, 기본어 회에는 두 언어간에 별 큰 차이가 없으나, 동식물군·개념·교육 제도·스포츠·정치제도 등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두 언어에 공통으로 쓰이면서 어휘의 뜻이 다르게 나타나는 예를 열거한다. 이들 가운데 미국영어에서 쓰인 용법이 최근에 영국에서도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19)

AE

SBE

billion a thousand million

a million million

dumb

stupid, mute

mute

homely

plain(people)

domestic

한편, 영국영어에서 하나의 주강세(main stress)만을 가진 어휘들이 미국영어에서는 하나의 주강세와 하나의 부강세(secondary stress)로 나타난다. 이 어휘들은 대개 -ary, -ory, -ery로 끝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 AE	auditory	secretary	laboratory	Birmingham
SBE	auditory	secretary	laboratory	Birmingham

10) 음의 높낮이 유형(pitch patterns)에서도 영미영어간의 차이가 다소 심하게 나타난다. 특히, 문장의 여러 억양 유형 가운데서도 의문문(question)과 요청문(request)에서 양자간의 차이가 심하다. 아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Yes-No의 문문의 억양 유형은 영국 영어에서는 문장의 마지막 부분이 상승한다.

(16) 영미영어의 억양의 차이

AE : Where are you going to be? ↗

SBE : Where are you going to be? ↗

AE : Are you sure? ↗

SBE : Are you sure? ↗

AE : Let me know where you're going to be. ↗

SBE : Let me know where you're going to be. ↗

5.2.2. 철 자

영국영어와 미국영어간에 철자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웹스터(Noah Webster)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의 사전편찬자인 그는 유명한 《미국영어 철자법》(The American Spelling Book)을 통해 미국영어의 철자법을 간소화 표준화하려고 노력한 사람이다. 다음에 열거한 예들은 두 언어간에 나타나는 철자 차이의

전형적인 예들이다. 그러나 요즈음 미국영어의 철자를 가운데는 영국영어에서도 쓰이며(예 : judgment, inquire, encyclopedia), 이는 반대로, 영국영어의 철자가 미국에서 사용되는 것들(예 : enclose, judgment)도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 (17)	SBE	-ou-	colour	honour	labour	mould	smoulder
	AE	-o-	color	honor	labor	mold	smolder
	SBE	-en-	enclose	endorse	enquiry	ensure	
	AE	in-	inclose	indorse	inquiry	insure	
	SBE	-ae/oe-	anaesthetic	encyclopaedia	fetus	manoeuvre	
	AE	-e-	anesthetic	encyclopedia	fetus	maneuver	
	SBE	-re	centre	litre	theatre	fibre	
	AE	-er	center	liter	theater	fiber	
	SBE	-ce	defence	offence	licence(noun)		
	AE	-se	defense	offense	license(noun/verb)		
	SBE	-ll-	libellous	quarrelling	travelled	jewellery	woollen
	AE	-l-	libelous	quarreling	traveled	jewelry	woolen
	SBE	-l-	fulfil	skilful	instalment		
	AE	-ll-	fulfill	skillful	installment		

이밖에도 다음과 같은 특이한 예들도 있다.

SBE	cheque	gaol	kerb	moustache	plough	storey	tyre
AE	check	jail	curb	mustache	plow	story	tire
SBE	tsar	pyjamas	programme	kidnapper	draught		
AE	czar	pajamas	program	kidnap	draft		

5.2.1. 발음(강세·억양)

영미영어간에는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발음상의 차이(미국영어에서 모음 다음에 /r/을 발음하는 예)를 제외하고, 두 언어간에는 다르게 발음되는 어휘들이 많다. 아마도 영국영어와 미국영어의 가장 큰 차이는 발음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들 가운데서 흔히 쓰이는 예를 몇 가지만 다루기로 한다.

① schedule은 AE에서는 두 개의 자음(skin에서처럼)으로 시작하나, SBE에서는 shin에서와 같이 하나의 자음으로 시작한다.

② tomato의 가운데 모음은 AE에서는 mate와 운(rhyme)이 맞으나, SBE에서는 car와 운이 맞는다.

③ lever의 첫음절은 AE에서는 level의 첫음절과 운이 맞으나, SBE에서는 leaver의 첫음절과 운이 맞는다.

④ 이와는 달리, leisure의 첫음절은 AE에서는 lee와 운이 맞으나, SBE에서는 let의 모음과 같은 발음을 지닌다.

⑤ route는 AE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out와 운이 맞으나, SBE에서는 항상 root와 같다.

⑥ vase는 AE에서 days와 SBE에서는 cars와 운이 맞는다.

⑦ docile은 AE에서는 [da:səl]로 발음이 되나, SBE에서는 [dousəl]로 발음된다. -ile로 끝나는 단어는 두 언어간에 이런 발음이 규칙적으로 적용된다. 예컨대, missile은 AE에서는 [misəl]로 흔히 발음되며, fertile, hostile 등도 마찬가지이다.

⑧ herb는 AE에서는 어두의 h를 발음하지 않으나, SBE에서는 어두의 h를 발음한다.

⑨ 많은 어휘의 경우, 두 언어간의 강세(stress)의 위치가 다르게 나타난다. (같은 글자 부분이 강세가 나타나는 위치임)

AE	ballet	debris	address	inquiry	magazine
SBE	ballet	debris	address	inquiry	magazine

등..... 이러한 생활환경에서 이들은 새로운 어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따라서 많은 새로운 미국적인 어휘를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이다. backwoods, underbrush, watgap, prairie, swamp 등과 같은 지형학적인 특성을 가리키는 어휘들이나, 인디언들로부터 배운 moccasin, raccoon, woodchuck 등이 그 좋은 예이다. 미국적인 생활양식을 그대로 드러낸 수많은 약어(abbreviation)나, 긴 말을 줄여서 짧게 만든 sneet(=snow+sleet), cablegram(=cable+telegram), know-how(=skill), sportscast(=sport+broadcast) 등은 미국 특유의 낱새가 물씬 풍기는 예들이다.

5.2. 영국영어와 미국영어의 차이

오늘날 영국영어(Standard British English: SBE)와 미국영어(American English: AE)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는 우리가 대개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그 수가 많다. 특히 관용어구의 경우, 두 언어 사이에는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가령, 미국의 어느 한 호텔에서 아침식사를 하면서 달걀을 주문한다고 하자. 그러면, 미국인 웨이터라면 예외없이 'How would you like your eggs?'라는 질문을 할 것이고, 영국인은 이런 경우 몹시 당황하게 된다. once over easy 나, sunny side up 이란 표현은 미국문화 특유의 어구이기 때문에, 사전에도 흔히 나오지 않는 것들이어서 두 언어의 차이를 실감나게 느끼게 해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

이제, 두 언어간의 차이를 발음(강세·억양 포함)·철자·문법(관용어구 포함)·어휘의 네 가지로 나누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도 흔히 쓰이는 예들을 열거해보기로 한다. 영국영어의 발음의 경우, 흔히 말하는 용인발음(received pronunciation)을 기준으로 하여 설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용한 영어는 셰익스피어·존슨(Ben Jonson)·말로우(Marlowe) 등이 사용하던 초기 현대영어 즉, 엘리자베스왕조의 영어(Elizabethan English)였다.

제 2 단계(1790~1860)는 제 1기 식민지 확장시기로 남북전쟁을 전후한 무렵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의 영국 이주민들은 제 1기의 영국 이주민들이 대부분 미국의 동부 뉴잉글랜드에 정착한 것과는 달리, 서쪽으로는 앨리게니산맥과 아팔라치아산맥을 넘어 서부로 진출하였고, 동부로는 펜실베이니아까지, 그리고 남부로는 남북 캐롤라이나주의 일부 비산맥 고원지대에 이르기까지 세력을 확장하면서 정착하였다. 따라서, 18세기 중엽에 형성된 메인(Maine)에서 조지아(Georgia)에 이르는 대서양 연안지역이 오늘날 모든 미국 영어 방언의 원천지가 되었다. 이 시기에는 아일랜드와 독일로부터 대량으로 이주민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으며, 네덜란드인·스웨덴인도 건너와서 비영어 사용자가 언어권에 섞이게 되었다.

제 3 단계(1860~현재)는 남북전쟁 이후의 시기로, 이민의 원천이 최고로 다채로운 이민의 원숙기를 일컫는다. 북유럽에 쏠렸던 이주민의 분포가 남부 유럽과 슬라브계의 여러 나라로 확산되면서 잡다한 인종이 모국에서 가져간 자기네 언어를 신대륙인 미국의 언어에 섞어놓게 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 이후에도 많은 이탈리아 인과 남유럽·동유럽인들이 대량으로 이주하여 각자의 특이한 언어를 신대륙으로 가져왔으나, 대부분의 경우 얼마 안 가서 미국 영어에 동화되고 말았다.

그러면, 이처럼 독특한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미국 영어의 특색은 무엇인가? 이것은 대개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미국 영어에 나타나는 고풍스러움(American archaism)을 들 수 있다. 영국 영어가 미국에서 사용되면서 옛 발음이나 형태 또는 단어의 의미가 그대로 미국 영어에 보존되어 있음을 보게 된

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 된 여러 언어 현상이 미국 영어에 그대로 남아 얼른 보기에 고색창연한 기풍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미국 영어에는 17, 18세기 영국 영어의 특징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를테면, 미국 영어에서 발음되는 far, farm, bird, first 등에 쓰인 /r/ 음은 영국 영어에서는 점점 발음이 안되기 시작하여 18세기에 이르러서는 /r/ 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는데, 이 발음이 아직 미국 영어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 어휘면에서는, apartment란 단어가 영국 영어에서는 17세기 중엽부터 ‘한 건물내의 여러 개 붙은 방’(a suite)을 뜻하였으나, 18세기초에 ‘단칸방’(a single room)이란 뜻으로 본래의 뜻이 협소화(specialization)되고, 원래의 의미는 flat 또는 복수형인 apartments로 대체되었는데, 미국 영어에서는 apartment가 아직도 원래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둘째로, 미국 영어의 통일성(uniformity)을 들 수 있다. 영국과 같은 나라의 경우, 지역에 따른 방언의 차이가 매우 심한 반면, 광대한 영토를 가진 미국에서는 방언의 차이가 놀라울 정도로 적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미국에 이주해온 이주민들이 전통과 인습에 사로잡혀, 일정한 지역에 오랫동안 정착하여 생활하지 않고 항상 좀 더 나은 생활여건을 찾아서 끊임없이 이동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항상 이동하며 생활하는 이들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한 지역에 나타나는 독특한 방언의 차이가 사라지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영어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데에 기여하였던 것이다.

셋째로, 이른바 아메리카니즘(Americanism)의 창출이다. 아메리카니즘이란, 미국 영어 특유의 어휘나 어구 또는 표현을 가리키는 말이다. 미국으로 건너온 이주민들이 미국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생활함에 따라, 영국이나 유럽대륙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광경을 수없이 목격하게 되었다. 한없이 넓은 들, 웅장한 산줄기, 끝없이 뻗어내려가는 강물, 진기한 동식물, 미국 인디언들과의 싸움

때문에 영어 어휘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데 별로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였으나, 영어에 대한 예리한 비판과 관찰은 영어의 형성 과정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며, 사전편찬가로서 또는 탁월한 산문체의 개척자로서 영어에 지대한 공헌을 쌓았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영문법 분야를 정의하려는 최초의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760년대에는 영문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1761년에 프리스틀리(Joseph Priestley)는 《영문법의 기초》(*The Rudiments of English Grammar*)를 출판했다. 이 시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문법서 가운데 하나는 로우스(R. Lowth)의 《영문법개론》(*Short Introduction to English Grammar*, 1762)으로서 규범 문법의 효시를 이룬다. 이와 함께, 머리(Lindley Murray)의 《영문법》(*English Grammar*, 1794)이 있다. 이 문법서는 18세기의 영문법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발행 이후 20편을 거듭하면서 학교 문법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머리가 내세운 주장은 ‘표현의 명쾌함은 순수함·타당성, 그리고 정확성이라는 자질을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18세기의 문법가들은 보수적이고 규범적인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그 전통 속에서 세 가지 일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첫째, 언어의 원리를 요약하여 규칙으로 만드는 일, 둘째, 논란의 대상이 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관용법의 옳고 그름을 결정해야 하는 일, 셋째, 일반적으로 범하기 쉬운 잘못을 지적하고 이를 수정하여 언어를 개량해나가는 일, 이 세 가지 목적은 모두 동시에 추구되었다.

이 시기의 문법적인 특징은, 언어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규칙을 정해놓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에는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면서, 똑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정해놓은 규칙을 따르도록 한 규범적인 성격을 띤 것이었다. 그리하여, 일정한 규칙에 따라 영어를 고정시킴으로써 영어의 변화를 막아보려는 오

류를 범하는 방법론상의 많은 결점을 지닌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5. 영국영어와 미국영어

고대영어시기부터 1100여 년 동안 영국에서 사용되던 영어 즉, 영국영어는 17세기초 아메리카 신대륙의 대서양 연안에 온 영국 식민지 개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미국에 전해졌다. 이 당시의 영어는 말할 필요도 없이 셰익스피어와 밀턴, 번연(J. Bunyan)이 쓰던 엘리자베스시기의 영국영어였다. 이로부터 39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일반적으로 말하는 미국영어는 영국영어와는 발음·철자·어휘·문법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주는 독특하고 개성있는 언어로 탈바꿈하였다. 특히, 제1·2차세계대전을 통해 국제무대에서의 미국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정치·군사·경제면에서 강대국이 되었고, 미국영어 사용과 보급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미국영어의 성립배경과 그 특색을 간단히 알아보고, 영국영어와 미국영어 사이의 차이를 어휘·발음·철자·문법·관용어구 등으로 나누어 비교해보고자 한다.

5.1. 미국영어의 성립배경과 특색

유럽대륙에서 건너온 이민들이 미국에 정착하게 됨으로 해서 시작되는 미국의 이민사 내지 미국영어의 역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3단계로 구분된다.

제1단계(1607~1790)는 이주민의 90퍼센트가 영국의 동남부로부터 미국의 동부 뉴잉글랜드(New England)지방으로 이주해온 시기로서, 영국에서 처음 미국으로 이주해와서 자리를 잡은 후, 독립을 얻기까지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이주민들이 당시 미국에서 사

에 *ɛ*로 다시금 상승했다. 이렇게 상승된 *ɛ*와 *o*는 18세기말에 이중 모음 *ei*(name), *ou*(boat)로 각각 변하게 되었다. 17세기 후반에 오면 중세영어 /au/에서 새로운 장모음 /o:/가 생겨나게 된다. 따라서, 초기 현대영어시기의 말경에는 장모음이 /i:/, /u:/, /e:/, /o:/, /a:/ 다섯 개가 되었다.

장모음 변화가 왜 일어났으며,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한 기간은 확실하지 않으나, 중세영어에서 초기 현대영어로 변화되어나오는 과정에서 장모음 *i*와 *ɪ*가 이중모음으로 변한 시기는 거의 같은 시기인 대략 15세기초의 일이며, 나머지 장모음들도 17세기까지 변화가 진행되었다.

쉴스키는 16세기 정음학자인 하트(John Hart, 1551~1579)의 기록을 해석하면서, 변형생성음운론(generative phonology)의 테두리 안에서 대모음추이의 단계적 음변화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즉, *i*와 *ɪ*가 이중모음화되고, 계속해서 강세가 있는 저모음이 아닌 장모음은 알파표기(α variable)를 사용한 규칙에 의해 고모음을 비고모음(non-high vowel)으로, 그리고 비고모음을 고모음으로 바꾸는 모음추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규칙 즉, 이중모음화규칙(Diphthongization)과 모음추이규칙(Vowel Shift)이 적용순서가 매겨진 대로 15세기 영문법에 더해졌다고 보고 있다.

(15)

(a) 이중모음화규칙

$$\phi \rightarrow \left[\begin{array}{c} - \text{voc} \\ - \text{cons} \\ \alpha \text{ back} \end{array} \right] / \left[\begin{array}{c} + \text{voc} \\ - \text{cons} \\ + \text{tense} \\ + \text{high} \\ \alpha \text{ back} \end{array} \right]$$

(b) 모음추이규칙

$$\left[\begin{array}{c} \alpha \text{ high} \\ - \text{low} \end{array} \right] \rightarrow [-\alpha \text{ high}] / \left[\begin{array}{c} - \\ + \text{tense} \\ + \text{stress} \end{array} \right]$$

4.4. 사전편찬

이 시기에 진행된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영어사전의 편찬이었다. 17세기로 접어들면서 영어의 발음과 철자법을 통일시키는 한편, 형태를 정리하고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영어를 좀더 세련되게 만드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절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영어의 사전으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코드리(R. Cawdrey)의 《어려운 단어의 철자표》(A Table Alphabeticall of Hard Words, 1604)란 사전으로, 약 3천 개의 용어를 설명한 120면짜리 조그마한 책이었다. 이 사전은 주로 외래어에서 들어온 알기 어려운 단어를 올바르게 쓰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이어 1616년에는 블로카(J. Bullokar)의 《영어해설서》(English Expositor), 1623년에 록커램(H. Cockeram)의 《영어사전》(The English Dictionary), 1656년에 블론트(T. Blount)의 《주석서》(Glossographia), 1676년에는 코울즈(E. Coles)의 《영어사전》(An English Dictionary)이 간행되었다. 이들 사전의 특색은 히브리어·그리스어·라틴어 등에 나오는 어려운 용어를 해석하거나, 신학·철학·법률·의학·수학·예술·과학 등 학문 분야에 쓰인 전문적인 술어를 설명하는 데 치우쳐 있어서 요즘 각종 사전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지닌 본격적인 의미의 사전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8세기 중엽에 등장한 것이 존슨(S. Johnson)의 《영어사전》(Th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1755)이다. 이 사전의 등장은 적어도 18세기에는 매우 중요한 언어적 사건이었다. 이 사전이 나오므로 해서 영어의 철자를 크게 고정시켰고, 단어 용법의 기준을 확립시켰다.

존슨은 7년여 동안 4만 개가 넘는 단어의 정의를 정확히 썼으며, 엘리자베스시대 이후의 가장 훌륭한 작가들의 작품에 나오는 용어를 인용하였다. 그는 새로운 단어나 어구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기

이해할 수 있고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구어적인 문체로, 영어의 관용어를 잘 살려서 쓴 것으로, 그후 많은 성서 번역에 모체가 되었다. 1611년에 나온 흠정역 성서는 다름 아닌 틴들의 성서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 성서에는 제익스피어 작품에 엿보이는 많은 수의 새로운 단어를 지니고 있지는 않으나, 고문체의 냄새가 길게 풍기는 단어들이 나타나 있다. 3만 개 이상을 구사한 제익스피어의 어휘와 비교하면 불과 8천여 개의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고작이다. 이 성서에 쓰인 문법 또한 전통적인 문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성서가 아니면 이미 사라져버렸을 상당수의 구문이나 형태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성서의 영역이 활발해지고 영어로 번역된 성서가 일반 대중에게 널리 보급되면서, 절대적인 권위를 자랑하던 라틴어는 종교계에서 그 지위가 떨어져버렸다. 반면, 영어는 종교활동의 도구로 한층 더 발전할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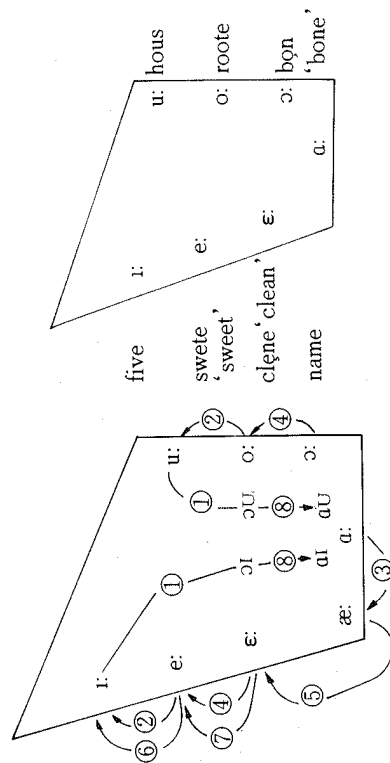
4.3. 대모음추이

중세영어에서 초기 현대영어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장모음의 변화이다. 후기 중세영어시기에는 일곱 개의 장모음이 있었으나, 이 가운데 두 개(i, u)가 초기 현대영어시기에 들어오기 전에 이중모음(i>ai, u>au)으로 변하고, 나머지 다섯 개의 장모음도 한 단계씩 상승하였다.

이처럼, 중세영어 이후에 장모음에만 일어난 모음변화는 예스페르센(O. Jespersen)에 의하여 처음으로 ‘대모음추이’(Great Vowel Shift)라고 일컬어지게 되었다. 예스페르센은 대모음추이가 개개 모음의 독립적인 변화가 아니고, 모든 장모음이 관련된 종합적 변화이며, 이 변화의 시발음(initiator)은 i와 u로 보고, 이들 모음이 이중모음이 됨에 따라 그 빈자리(case vide)를 채우기 위하여 아래

의 모음들이 연쇄적으로 서서히 한 단계씩 위로 끌려올라갔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구체적인 단어의 예와 함께 도표로 알기 쉽게 나타내면 (14)와 같다.

(14) 대모음추이의 변화과정



이러한 장모음의 변화는 짧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400년을 시발점으로 하여 1700년경에 이르는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면 대모음추이는 어떤 모음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예스페르센에 의하면, 약 1400년경에 마르티네(Martinet)가 말하는 이른바 연쇄당김현상(drag chain)에 의하여 고모음인 i, u가 제일 먼저 이중모음이 되고, 이들 모음의 빈자리로 하위모음들이 연쇄적으로 한 단계씩 상승했다. 따라서 이 빈자리에 e와 o가 i와 u로 상승하고, 그 다음 ε와 ɔ가 e와 o로 각각 상승했으며, 또한 a(<ε)가 17세기말에 다시금 i로 상승했으나, 이 변화는 18세기 중엽에 가서야 보편화되었다.

한편, 중세영어 a(<OE a)는 æ를 거쳐 ε로 상승한 후, 16세기

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가 쓴 수 많은 작품에 나오는 단어나 어구는 일반 대중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어가 누구나 알 수 있는 관용어구(idioms)가 되어버렸으며, 교양을 갖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설사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유래한다는 것은 모를지언정 그 뜻은 잘 알고 사용하였다. 이들 관용어구 가운데서 일반에게 널리 알려져 사용된 용례를 몇 가지만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12) begs all description (Antony and Cleopatra, II, ii) *피린은 모든 표현을 벗어난*
 a foregone conclusion (Othello, III, iii) *피터의 피는*
 hoist with his own petard (Hamlet, III, iv) *자신의 함정에 걸려*
 in my mind's eye (Hamlet, I, ii) *나의 상상 속에서*
 't's Greek to me (Julius Caesar, I, ii)
 salad days (Antony and Cleopatra, I, v) *자신의 젊은 시절*
 more in sorrow than in anger (Hamlet, I, ii)
 play fast and loose (Antony and Cleopatra, IV, xii) *가짜 사랑*
 a tower of strength (Richard III, V, iii)
 make a virtue of necessity (Pericles, I, iii) *필수악을 미덕으로 삼아*
 dance attendance (Henry VIII, V, ii) *춤추는 것*
 cold comfort (King John, V, vii) *냉랭한 위로*
 at one fell swoop (Macbeth, IV, iii)
 to the manner born (Hamlet, I, iv) *습관대로*
 there are more things in heaven and earth..... (Hamlet, I, v) *하늘과 땅 사이에*
 Brevity is the soul of wit (Hamlet, II, ii)
 hold the mirror up to nature (Hamlet, III, ii) *자연의 거울을*
 I must be cruel only to be kind (Hamlet, III, i) *악을 행함은 선을 행하기 위하여*

성서 또한 이 시기의 영어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종교개혁으로 개인의 존재가 새롭게 인식됨에 따라 종교의 교리를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였는데, 이렇게 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4세기말, 성 제롬(St. Jerome)에 의해 라틴어로 된 성서가 널리 유포되었으나, 성서의 내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라틴어로 된 성서를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그후, 위클리프에 의해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된 성서가 나오기 시작하여 많은 번역 성서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 가운데서 종교개혁자인 틴들(J. Tyndale, 1492~1536)의 번역 성서는 일반 대중이 쉽게

(13) 흥정역 성서의 한 페이지. 고딕체로 써어 있음

Godgoodneffe. Psalm

PSALM. XXIII.

Dauid's confidence in God's grace.

A Psalm of Dauid.

1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2 He maketh me to lie downe in greene pastures: he leadeth mee beside the still waters.

3 He refresheth my soule: he leadeth me in the pathe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4 Yea though I walke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e of death, I will feare no euill: for thou art with me, thy rod and thy staffe, they comfort me.

5 Thou preparedst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ine enemies: thou hast anointed my head with oyle, my cuppe runneth ouer.

6 Surely goodnes and mercie shall folow me all the dayes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 ever.



4.2. 셰익스피어와 흥정역 성서

르네상스 후반을 지배한 두 가지 커다란 영향은 말할 필요도 없이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1616)의 작품과 흥정역 성서이다. 이들이 영어에 끼친 영향은 어떠했을까?

이 시기는 철자법이 아직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모습으로 쓰이던 때이어서 발음도 이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쓰였다. 그뿐만 아니라, 문법적인 사항에서도 일정한 규범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기운이 감돌던 시대였기 때문에, 영어는 여전히 유동적인 상태를 면치 못했다. 한편, 이러한 자유스러운 기풍은 작가의 경우, 마음대로 영어를 다룰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했는데, 이러한 여건을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바로 셰익스피어였다.

셰익스피어는 철자·발음·문법의 전분야에 걸쳐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은 영어를 어떠한 단어든 구해받지 않고 자유로이 사용하였다. 이를테면, 주어와 동사 사이에 나타나는 ‘수의 일치’에서 현대영어와는 달리, 글썽이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동사의 수가 단수 또는 복수로 쓰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수의 일치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는 화려하고 난해한 단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그의 극 가운데 나타나는 대화 내용도 소박하고 허식이 없는 언어로 씌어졌다. 그가 작품 가운데서 구사한 어휘 수는 2만 5천여 개로, 당시로서는 가장 풍부한 어휘를 사용하였는데, 그의 위대성은 그가 구사한 어휘 수보다는 필요한 만큼 다양한 문체를 다루고, 인간사와 인간관계를 예리하게 묘사했다는 점이다. 삶의 모든 문제에 관한 그의 관찰은 예리했으며, 이들을 묘사하거나 자기의 사상을 표현하는 데 그가 활용한 문법이나 어휘의 선택과 활용은 적절했다.

셰익스피어는 서체어의 형성뿐만 아니라 구어나 속어의 영어표

(11) 셰익스피어의 *The Tragedie of King Lear*의 한 장면

Glow. Now good Sir, what are you?

Edg. A most poor man, made tame to fortunes blows
Who, by the Art of known, and feeling sorrows,
Am pregnant to good pity. Give me your hand,
I'll lead you to some biding.

Glow. Hearty thanks :
The bounty, and the benison of Heaven
To boot, and boot.

Enter Steward.

Serv. A proclaim'd prize : most happy:

That eyeless head of thine, was first fram'd flesh
To raise my fortunes. Thou old, unhappy traitor,
Briefly thy self remember : the Sword is out
That must destroy thee.

Glow. Now let thy friendly hand
Put strength enough to't.

Serv. Wherefore, bold Peazant,
Dart thou support a publish'd traitor? hence,
Left that th' infection of his fortune take
Like hold on thee. Let go his Arm.

Edg. Chill not let go Zir,
Without further caution.

Serv. Let go, Slave, or thou dy'st.

Edg. Good Gentleman go your gate, and let poor volk
pals : and 'chud ha' been zwagg'd out of my life, 'twould
ha' been so long as 'tis, by a vortnight. Nay, come not
near th' old man : keep out cle vor'ye, or ice try whither
your Colfard, or my Ballow be the harder, chill be plain
with you.

Serv. Out Dughil.

Edg. Child pick your teeth Zir : come, no matter vor
your foyns.

Serv. Slave thou hast slain me : villain, take my purse;
If ever thou wilt thrive, bury my body,
And give the Letters which thou hinc'f about me,
To Edmund Earl of Gloster : kee him out
Upon the English party. Oh untimely death, death.

Edg. I know thee well. A serviceable Villain,
As dutious to the vices of thy Mistress,
As badness would desire.

Glow. What, is he dead?

Edg. Sit you down Father : rest you.

한편으로, 영어가 문학작품의 영어로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르네상스라는 사건을 계기로 그리스어·라틴어와 같은 고전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적어도 모든 학술 분야에서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였고, 영어보다는 라틴어와 같은 고전어를 높이 평가하는 습관이 이 시기에 한층 더 심하게 나타났다. 고전어를 본격적으로 학습하고 고전문학을 연구하기 위한 학교가 설립되었는가 하면, 각급 학교에서 라틴어는 교과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고전어에 대한 높은 관심과 보편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더 가다듬고 세련된 언어로 만들어보려는 운동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하였고, 16세기를 계기로 해서 일어난 이른바 종교개혁은 영어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 성서번역이 활발해지고, 이렇게 해서 영역된 성서가 일반 대중에게 널리 보급됨에 따라 라틴어의 권위는 떨어지게 되었으며, 16세기말경에 이르러서 영어는 비로소 완전히 공인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나타난 영어의 일반적인 **특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고전어를 포함한 외래어의 도입으로 영어는 이제 풍부한 어휘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으로, 언어순수론자(purists)들은 고전어의 어휘가 영어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여 이들을 ‘현학적인 용어’(inkhorn terms)로 내몰아 영어에 고유한 어휘의 발달에 방해가 된다고 비난하였다.

스펜서(Edmund Spenser)와 같은 일부 작가들은, 이미 쓰이지 않는 영어 단어들을 재생시키거나, 방언에서나 쓰이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단어들(예 : algate ‘always’, sicker ‘certainly’, yblent ‘confused’)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그다지 큰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오히려 고전어의

유입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영어의 장점을 강조한 멀캐스터(R. Mulcaster)의 다음과 같은 말은 새겨볼 만하다.

.....our own bearing the joyful title of our libertie and fredom, the Latin tung remembring us of our thralldom and bondage. I love Rome, but London better; I favor Italie, but England more; I honor the Latin, but worship the English.

둘째, 중세영어의 장모음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는 이른바 대모음추이의 결과, 영어의 모음은 현대영어의 모음과 매우 가까운 발음을 지니게 되었다. 한편으로, 이와 같은 장모음의 변화로 말미암아 발음과 철자와의 거리가 한층 더 멀어지게 되었다.

셋째, 르네상스시기의 영어는 적어도 고대영어시기부터 지녀온 단어의 형성력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해서, 새로운 개념이 나타날 때마다 엄격한 문법적인 범주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구사했다. 형용사가 부사로, 명사로, 동사로도 나타나는가 하면, 명사가 동사로도 나타난다. 사실상, 거의 모든 품사가 거의 모든 다른 품사로도 사용될 수 있었다. 이것은 다음절에서 살펴볼 셰익스피어의 언어와 그의 작품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넷째, 이 시기는 영어를 향상시키고 어휘를 늘리며 철자를 고정시키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끊임없이 나타난 때였다. 16세기에는 상당한 양의 문학작품을 접하게 되는데, 라틴어나 다른 언어로 쓴 작품에 대해 영어를 옹호하면서 학문적이고 문학적인 용도에는 영어가 더 적합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기운이 팽배했다. 이와 동시에, 영어는 교양이로서도 가치가 있을 뿐더러 젊은이들의 교육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궁지와 교양의 목적으로 영어를 배우려는 관심과 함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어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뒤따른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기의 특징을 개관해보고자 한다.

4.1. 르네상스와 이 시기의 특징

르네상스는 학문 또는 예술의 재탄생, 부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고대의 그리스-로마문화를 이상으로 하여 이들을 부흥 시킴으로써 새 문화를 창출해내려는 운동으로 14세기 후반부터 15세기 전반에 걸쳐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다.

르네상스 사상의 기본 요소는 이탈리아의 인문주의자인 페트라르카(Petrarca)가 이미 설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고대를 문화의 절정기로 보는 반면, 중세를 인간의 창조성이 철저히 무시된 '암흑시대'라고 불으로써 문명의 재흥과 사회의 개선은 고전학문의 부흥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당시 인문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크나큰 확신이기도 했는데, 이들은 단순한 라틴 학문의 부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지적 창조적 힘을 재흥시키려는 신념에 가득 차 있었다.

볼테르(Voltaire)는 14, 15세기의 이탈리아에 학문과 예술이 부활했음을 지적했으며, 미슐레(Michelet)는 16세기의 유럽을 문화적으로 새로운 시대라고 하여 처음으로 르네상스란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르네상스를 인간성의 해방과 인간의 재발견, 그리고 합리적인 사유와 생활태도의 길을 열어준 근대문화의 선구라고 보고, 이와 같은 해석의 기초를 확고히 닦은 학자는 19세기 스위스의 문화사가인 부르크하르트(Burckhardt)이다.

영국에서는 이탈리아 문예부흥의 영향을 받아, 14세기에 초서가 《캔터베리이야기》를 영어로 썼으며, 영국 전역에 퍼진 교육의 보편화로 인해 일반 대중이 중세기의 암흑상태에서 깨어나서 〈패스턴서한〉(Paston Letters)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었으며 근세로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이 이 시기에 비로소 마련되었다.

있어서도 현대영어의 어순과 그리 차이가 크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4. 초기 현대영어

1476년 캐스튼이 인쇄술을 영국에 도입한 이후 영어사의 행보는 한층 더 빨라지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영어 철자와 발음의 표준 형태가 갖추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한층 더 많아지면서 이들의 작품이 영국 방방곡곡에 퍼지게 되었다. 그 결과, 이 시기에 나온 책들이 다른 시기에 비해 더 많이 후세에 남게 되었다. 이후 150년 동안 무려 2만여 권에 달하는 출판물이 쏟아져나왔다.

16세기에 들어와 새로운 출판물이 홍수를 이루게 된 주요 원인은 고전어와 고전문학, 그리고 급속히 발전하는 과학·의학·예술 분야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었으며, 이 시기는 영국에서 캐스튼부터 1650년경까지 계속되는 이른바 '르네상스' 시기에 해당된다. 또한 모음에 일대 변화를 가져온 대모음추이(Great Vowel Shift)로 인해 초서에서 세익스피어에 이르는 시기에 모음의 음질에 커다란 변화가 와서 발음이 안정되고 오늘날의 영어와 같은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이 시기는 또한 종교개혁의 시기요, 코페르니쿠스의 시기이며, 아메리카 발견의 시기이기도 했다. 르네상스의 마지막 시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세익스피어와 혼정역 성서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한편으로는 영어의 발음과 철자법을 통일시키고, 어휘의 뜻을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한 관심이 17세기 중엽 이후 고조되면서 영어 사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많은 사전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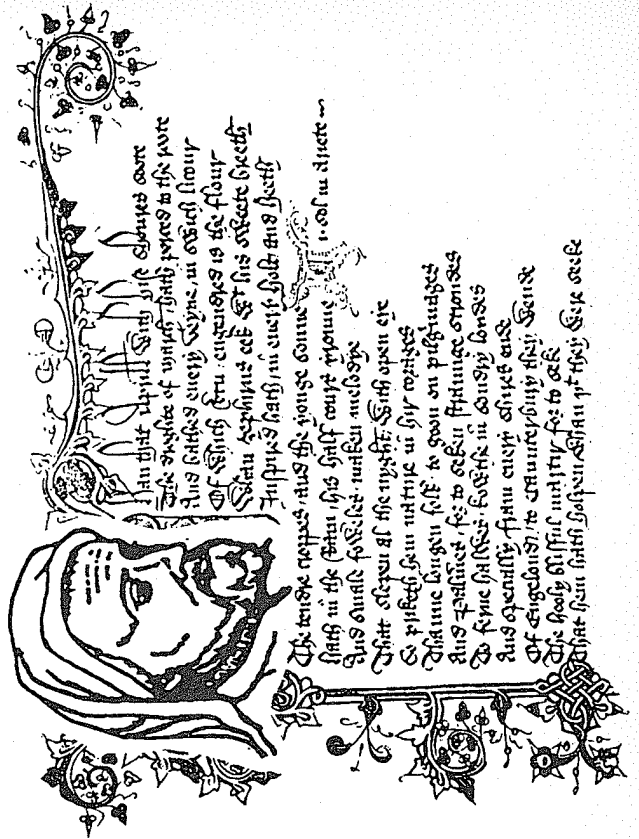
따라서,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언급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에 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초기 현대영어의 형성과 이 시

식의 중요한 중심지로 그 권위를 자랑하면서 발전하였다.

넷째로, 앞에서도 언급한 초서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초서는 셰익스피어 이전의 가장 위대한 영국 궁정시인으로서, 그가 중동부 방언(즉, 런던 방언)을 구사하여 쓴 많은 작품들의 인기에 힘입어 그의 언어는 영국 전역에 확산되었는데, 15세기말 캐스튼의 대량 서적출판은 중동부 방언이 표준어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갖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초서는 종래 사용되어 오던 영어의 두운시법(alliterative verse method)을 버리고 프랑스와 이탈리아어식의 시작법을 사용했다. 따라서, 그는 연(stanza)이나 대구(antithesis)에서는 각운(end rhyme)을 사용하고 일정한 수의 음절을 가진 시행을 만들어가는

(10) 초서와 *Canterbury Tales*의 서시 가운데 처음 18행



데, 이 두 가지 방법은 종래의 두운시법과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 그러므로 초서의 시를 읽기 위해서는 단어의 어말 -e음을 전부 다 발음하지는 않고 상당한 수의 음을 발음해야 할 필요가 있다.

초서의 작품에는 주격 *ye*와 대격 *you*를 한결같이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 초서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씌어진 작품에는 나오지 않지만, 초서의 작품에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인칭대명사로서 *she*가 있다. 이 대명사는 고대영어에서는 *heo*였는데, 12세기까지는 *she*와 같은 형태가 나타나지 않다가 1140년이 채 못 되는 시기에 작성된 《피터보로 연대기》(*Peterborough Chronicle*)에 *scæ*라는 형태가 나타난다. 이 형태는 중동부지역에서 생겨나서 그곳으로부터 사방으로 퍼져나가 사용되다가, 14세기 중엽에 이르러 비로소 서체 영어에서 널리 인정된 형태로 쓰이게 되었다. *she*와 복수 방언인 *sho*는 둘 다 고대영어의 *heo*에서 직접 발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초서는 동사의 단수어미인 -eth 또는 -th와, 복수어미인 -en 또는 -n을 사용하고 있다. 단수형 굴절어미인 -eth는 중세영어시기를 지나는 동안 내내 남부지역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며, 이를테면 *he saith, he sayeth, he walketh*와 같은 형태는 규칙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완료시제는 초서 작품에서도 흔히 나타난다. 또한 비인칭구문은 고대영어나 중세영어에서는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구문으로 초서의 작품의 경우 *Me mette 'I dreamed'*와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옮기면 'It dreamed to me(me는 여격임)'와 같은 뜻이 된다.

초서 작품에 나오는 어휘의 두드러진 특징은 프랑스어에서 빌려온 차용어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의 어휘가 덕성(virtue), 특히 궁정에서 쓰이는 유형(예 : hardy, avantour, coward, secree 등)을 지칭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피터보로 연대기》와 비교해볼 때, 초서의 어휘는 훨씬 현대에 가까우며 어순에

ex. (10) 114
18p 중
2474

고대영어에서 ic sceal 은 'I am obliged to(~에게 감사하다)' ic wille 는 'I wish to(~기를 원하다)'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쓰였다. shall 과 will 은 각각 '의무'와 '소망'의 의미를 지니고 사용되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이와 같은 의미는 없어지고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 쓰이는 것이 주된 용법이며, 이와 같은 기능은 중세영어시기에 발달한 것이다.

완료시제(예 : We have eaten, He had broken)는 고대영어시대에 확립되었으나, 빈번하게 또는 일관성있게 사용된 것은 그보다 훨씬 뒤의 일이다. 《앵글로-색슨연대기》에는 "Hæ hine ofslægne hæfdon"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They him slain had'가 된다. 여기서 ofslægne의 -ne는 대격 단수 남성을 지칭하는 굴절어미로서 hine 'him'과 운(rhyme)을 맞추게 된다. 이처럼, 고대영어에서까지도 과거분사를 굴절시키는 습관은 사라져가고 있었으며, 중세영어로 와서는 구문이 발전하여감에 따라 동사의 여러 가지 완료시제형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일어난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고대영어의 많은 불규칙형이 그 불규칙성을 잃고 규칙적으로 이루어진 단어의 유형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고대영어의 명사 boc 'book'의 복수형은 bec, broc 'brech'의 복수형은 brec이었으나, 초기 중세영어시기를 지나는 동안 이들 단어는 몇 개의 예외(men, mice, oxen 따위)를 제외하고는 규칙적인 복수형 어미인 -s를 붙이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대영어에서 불규칙하게 쓰이던 많은 동사들이 중세영어시기에 와서 규칙적인 것으로 되었다. 그 한 예로, 고대영어에서 help 는 그 과거형이 healp, 과거분사형 holpen이었으나, 중세영어시기를 거치는 동안 과거와 과거분사형이 helped로 되었다.

3.4. 초서영어의 특징과 현대 표준영어의 성립

영어발달사를 통해서 중세영어시기는 매우 중요성을 띤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를 거치는 동안 고대영어의 모습이 상당히 달라지고, 이렇게 달라진 양상이 그대로 계속되면서 초기 현대영어시기를 거쳐 오늘날 우리가 쓰는 현대영어의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중세영어시기에 쓰인 방언들 가운데서 후에 전국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표준어의 형성에 제일 많이 기여하게 된 방언은 중동부 방언, 이 가운데서도 런던 방언이었으며, 적어도 문어(서체어)에서는 14세기 말엽부터 15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표준어로 널리 인정받게 되었다. 특히, 초서(Geoffrey Chaucer; 1340? ~ 1400)의 윌리프·가우어(Gower)와 같은 작가들이 중동부 방언으로 작품을 썼으며, 1476년 인쇄술의 도입으로 캐스톤(Caxton)이 중동부 방언을 영국 전역에 전파시키는 데 적지 않은 공로를 세웠다.

중동부 방언이 영국의 표준어로 성장하게 된 데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우선, 중동부 지역은 지리적으로 볼 때, 남쪽과 북쪽의 중간 위치에 있어서 남쪽 방언보다는 덜 보수적이었고, 북쪽 방언보다는 덜 급진적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중간적인 위치는 라틴어 작품의 번역자인 트레비사(Trevisa)에 의하여 14세기에 인정을 받았다. 둘째로, 다른 방언지역에 비해 인구가 월등하게 많고 농토가 광대하고 비옥해서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다는 점이다. 더욱이 수도인 런던이 이 지역의 남쪽에 위치하여 이 지역이 지닌 비중을 한층 더 부각시켰다.

셋째로, 이 지역에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라는 두 대학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14세기의 수도원들은 그전보다 학문의 진파에서 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는 달리, 이 두 대학은 학문과 지

늘날까지 남아 있어서 'Ye Olde Tea Shoppe'와 같은 표현의 맨 처음에 나오는 Y의 형태가 그것인데, Ye는 단지 pe를 기술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았다.

철자의 변화는 발음에도 영향을 끼쳤다. 고대영어 단어의 맨 처음에 와서 흔히 쓰인 /h/ (예: hring 'ring', hnecca 'neck')는 중세 영어 초기에 없어져버렸다. /v/도 또한 프랑스어 차용어의 사용으로 인하여 한층 더 중요하게 되었으며, fan, van의 두 첫소리를 구분하기 시작했다. 단어 끝에 오는 /ŋ/도 이 시기에 단어의 의미를 구분하는 데 쓰였다(예: thing과 thin). 본래 단어의 어미를 구 분해 주었던 모음의 음질(예: stanes 'stones', stanas 'stones')도 더 이상 효력을 지니지 못하였다. 어말에 쓰인 e는 1400년경까지 발음되었는데(예: tunge 'tongue'), 이 시기에 와서는 두 음절로 발음되면서 마지막 e는 /ə/의 음가를 지니게 되었다.

문법면에서 보면, 중세영어시기는 고대영어로부터 물려받은 굴절체계가 크게 무너져가는 특징을 보이는 시기이다. 따라서 중세 영어를 가리켜 흔히 '약화된 굴절체계의 시기'라고 일컫는다. 이렇게 된 데에는 다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영어와 고대 노르웨이어와의 혼합이었다. 영어와 스칸디나비아어에 나타나는 단어들은 구별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비슷한 데가 많았으나, 굴절체계에서는 결정적으로 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서는 정확한 굴절형을 사용하려는 문체에 대한 의욕과 혼란이 당연히 일어나게 마련이며, 언어 사용자들도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문법적인 장치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띠게 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어말에서 강세를 받지 않는 음절이 상실되고 약화되는 현상으로, 이로 인해 고대영어에서 변별적인 굴절체계의 상당수가 없어졌다. 이를테면, 고대 영어의 명사 sunu는 중세영어로는 여격 복수형인 sonen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

우에 sone가 된다. giefе 'gift', wine 'friend'와 같이 서로 다르게 변화하는 명사들의 예도 위와 똑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영어의 모든 굴절체계는 간소하게 되었다.

굴절체계가 무너짐에 따라 이를 대체할 다른 문법장치가 점점 더 활발히 쓰이게 되었다. 그 하나로 어순(word order)이 한층 중요해지고 더욱 엄격해졌다. 고대영어에서 단어를 배열하는 세 가지의 전형적인 방법을 예로 든다면, 알프레드왕이 기록한 'pa ic pa pis eall gemunde, pa gemunde ic eac ha ic geseah……'라는 문장을 들 수 있다.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절로 되어 있다. ① 'When I then this all remembered', ② 'then remembered I also', ③ 'how I saw……'. 이 가운데서 불과 3분의 1만이 현대 어법과 일치하는 어순을 가지고 있다. 중세영어시대에는 세 번째 유형을 택하여 썼고, 다른 두 유형은 없어져버렸다.

굴절체계의 상실로 인해 등장한 또 다른 문법장치로는 굴절체계에 나타나있었던 종전의 문법기능을 대신 수행하기 위해 단어들을 분리해서 점점 더 많이 사용하게 된 점이다. 이를테면, in, with, by와 같은 전치사들은 고대영어에서보다 한층 더 빈번하게 쓰였다. 고대영어로 된 구절 몇 개를 현대영어와 함께 예로 들면, hun-gre acwelan 'to die of hunger', meahtum spedig 'abundant in might', daeges and nihtes 'by day and by night', hwilum 'at times'와 같은 것들이 있다.

동사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하게 발달해왔음을 알 수 있다. 고대 영어에는 동사의 굴절형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시제는 오직 현재와 과거의 두 가지밖에 없었다. 중세영어와 현대영어에서 굴절체계는 그 수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시제의 경우에는 be, have, shall과 같은 조동사의 도움을 얻어 복잡한 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shall과 will을 써서 나타내는 미래시제는 중세영어시기에 확립된 것이다.

알프레드왕이 다스리던 잉글랜드지역에서 사용되어, 이 두 지역이 서로 다른 영향권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물론 동남부 방언은 고대영어의 켄트 방언에서, 그리고 남부 방언은 서색슨 방언에서 생겨난 것들이다.

이들 중세영어의 여러 방언간에는 많은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이 가운데서 한 가지만 예로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고대영어의 *a*는 험버강 북쪽으로는 그대로 남아 발음되었으나, 험버강 남쪽에서는 12세기에 와서 [ɔ:] (law의 모음 발음)로 바뀌었다. 이 음은 현대영어로 와서 boat와 같은 단어에 나타나는 이중모음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 반면, 중세영어의 *a*는 dame에 나타나는 이중모음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해서 고대영어의 ham은 남부 잉글랜드지역에서는 home이 되었지만, 스코틀랜드 방언에서는 아직도 haim이란 형태로 남아 있다.

방언간의 변이로 일어나는 실례를 또 하나 더 든다면, 고대영어의 전설원순모음인 *y*가 중세영어로 와서 다르게 나타난 양상이다. 북부·중동부지역, 데본(Devon), 도셋트(Dorset), 그리고 윌트(Wilts)지역에서는 이 모음이 평순이 되어 *i*음으로 발음되어 고대 영어의 cynn 'kin'은 kinn이 되었다. 그런데 켄트·에섹스·미들섹스·서섹스, 그리고 서포크의 일부 지역에서는 e음으로 발음되어 kenn으로 남아 있으며, 그밖의 다른 지역에서는 그대로 *y*로 남아 대개 *u*라는 철자로 사용되어 kunn으로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대영어의 장모음 *y*는 중세영어로 와서 *i* 또는 *e*가 되거나, 똑같은 여러 지역에서 그대로 장모음인 *y*로 남아 있게 되었다. 표준 현대영어는 *y*와 *y*가 정상적으로 발전하여 *i*와 *ɪ*가 되고, 장모음 *ɪ*는 그후 hide와 같은,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이중모음이 된 방언에서 유래하여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고대 영어의 cynn과 mys는 오늘날 각각 kin과 mice가 되었다.

그런데 영어로 들어온 것을 가운데는 다른 방언에서 생겨난 일

탈된 형태들도 간혹 찾아볼 수 있다. merry와 left란 단어는 남동부지역 방언에서 생겨난 것으로, 이들의 고대영어형이 각각 myrige와 lyft인 때문이다. 그리고 bury(고대영어 byrgan)의 경우, 발음은 켄트지역에서, 철자는 고대 서색슨지역에서 빌려다가 이루어진 반면, busy(고대영어 bysig)는 남부지역의 철자를 가지고 있으나, 발음의 경우에는 중동부지역이나 북부지역에서 빌려다 쓴 것이 특이하다.

서로 다른 지역간에 나타나는 어휘상의 차이점은 차용어 문제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북부와 중동부 방언에는 스칸디나비아어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다. 이들 가운데는 중세영어시기를 거치는 동안 다른 방언으로 스며든 단어들이 더러 들어 있으나, 많은 수가 옛 데인로지방 밖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못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프랑스어에서 온 차용어는 처음에는 유행과 행정의 중심지인 런던 부근에 상당히 조밀하게 나타나서 여기서부터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갔으며, 14세기에 이르러서는 전국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되었다.

3.3. 언어변화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철자의 변화이다. 노르만 기록관들(scribes)은 종래 기술하던 영어 철자법을 무시하고 노르만 프랑수아(Norman French)의 철자법을 사용하여 주위에서 들은 대로 언어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철자법의 도입은 중세영어의 모습을 새롭게 바꾸어놓았다. 새로운 자음 기호가 많이 도입되었다.

고대영어에서 *ȝ*로 표시된 폐쇄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g*라는 새로운 기호가 만들어졌는데, 마찰음 표시만은 고대영어에서 사용하던 기호를 그대로 썼다. 고대영어의 문자인 *p*, *ð*, *þ*, *æ*는 안 쓰이게 되고 *ð*와 *þ*는 *th*로 대체되었는데, *ð*는 1300년경까지, *þ*는 1400년경까지는 매우 흔하게 사용되었다. 이 기호는 변모된 형태로 오

과 영국인간에 혼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노르만정복이 일어난 지 100년 가량 되었을 때에는 어느쪽이 영국인이고, 어느쪽이 노르만인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두 민족이 융합되어 있었다.

위대한 역사학자인 비탈리스(Ordricus Vitalis)의 예는 영국의 지식인 사회에서 프랑스어의 쇠퇴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된다. 한 노르만인 기사와 영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비탈리스는, 노르만정복이 일어난 지 10년도 채 안되는 해에 났으며, 지방 사제에게 라틴어 교육을 받았다. 열 살이 되던 해 그는 노르만의 한 수도원에 보내져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다. 그곳에서 그는 “like Joseph in Egypt, I heard a language which I did not know”라고 라틴어로 적고 있다. 다시 말해, 그는 프랑스어를 한마디도 알지 못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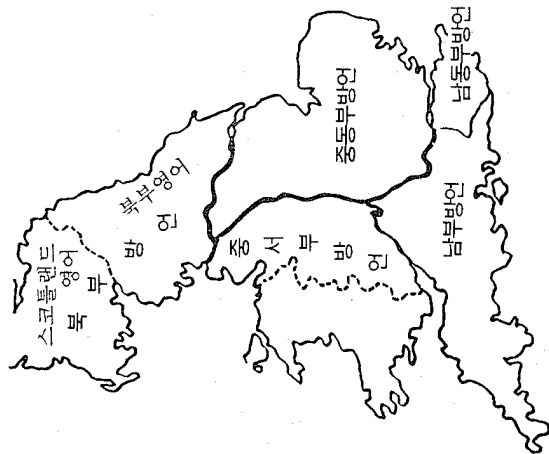
셋째, 리처드 1세의 뒤를 이어 즉위한 존왕(King John)의 성급한 군사행동으로 인하여 영국에 있던 노르만인은 1204년, 유럽대륙에 있던 그들의 프랑스 영토를 잃게 되었다. 그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국과 프랑스의 유대관계는 끊어졌으며, 그 사이 일반 대중의 생활조건이 개선되고 풍요한 중산층의 발흥으로 인해 14세기경, 영어는 다시금 그 지위를 되찾아 영국인들의 국어로 다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3.2 중세영어 방언

중세영어시기에 와서 생겨난 주요 방언의 대략적인 경계선은 아래 지도에서와 같이 나타나는데, 그 주요한 방언이란 북부 방언(Northern dialect; 이것은 다시 스코틀랜드영어와 북부영어로 나누어진 다), 중동부 방언(East Midland dialect), 중서부 방언(West Midland dialect), 남부 방언(Southern dialect; 이것은 다시 중남부 방언과 서남부 방언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남동부 방언(켄트 방언; 템스강 이남의 켄트지역)을 일컫는다. 이들 방언은 고대영어의 여러 방언과 상

당히 밀접하게 대응하고 있다.

(9) 중세영어 방언



중세영어 방언이 고대영어 방언에 비해 훨씬 더 하위구분이 된다는 사실은 후자보다 전자에 관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언어학적인 상황에 비추어보아도 중세영어시기에 와서 실질적인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난 때문이기도 하다.

고대영어의 노섬브리아 방언이 중세영어로 와서 스코틀랜드영어 방언과 북부영어 방언으로 갈라지게 된 이유는, 단순히 중세영어 시기를 거치는 동안 노섬브리아지역이 정치적인 문제로 두 지역으로 갈라지게 되어 스코틀랜드 문어(written English)가 나타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때문이다.

중세영어의 중동부 방언과 중서부 방언은 모두 고대영어의 머시아 방언에서 갈라져나온 것인데, 이 두 방언간에 나타나는 현저한 차이는 전자가 데인로(Danelaw)지역에서 사용된 반면, 후자는

3.1. 노르만정복과 영어의 재등장

고대 영국 사기(chronicle)인 《앵글로-색슨연대기》(*The Anglo-Saxon Chronicle*)에는 노르만족이 현재 헤이스팅스의 서남쪽에 있는 페븐시(Pevensey) 해안에 상륙하여 헤럴드가 이끄는 영국군을 격퇴시킨 장면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Then Count William came from Normandy to Pevensey on Michaelmas Eve [28 September], and as soon as they were able to move they built a castle at Hastings. King Harold was informed of this and he assembled a large army and came against him at the holy apple-tree, and William came against him by surprise before his army was drawn in battle array. But the king nevertheless fought hard against him, with the men who were willing to support him, and there were heavy casualties on both sides. Then King Harold was killed and Earl Leofwine his brother, Earl Gyrth his brother, and many good men, and the French remained masters of the field

헤이스팅스에서의 노르만인의 승리는 영어의 모습을 크게 변모시켰다. 헤럴드는 영어를 사용한 영국의 마지막 왕으로 이것은 근 300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 노르만정복으로 인해 앵글로-색슨족은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영국인의 국어로 사용되던 영어는 완전히 그 지위를 잃고 하류계층 서민들의 일상어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대신, 과거 로마의 지배를 받던 때의 라틴어 영향이 그대로 살아 있는 프랑스어가 표면에 등장하여 영국의 공용어(official language)로 쓰이게 되었다.

중세영어시대를 거치는 동안 영어는 프랑스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프랑스어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영어는 게르만어의 성격을 띤 고대영어를 계승한 것이라기보다는 프랑

스어의 색채에 담긴 중세영어를 더 많이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르만정복 이후 프랑스어는 상류계급과 궁정의 언어로 군림했고, 그후 200여 년간 존속하였다. 프랑스어가 사회적 문화적인 명성을 누리는 동안, 라틴어는 종교와 학문의 주요 언어로 여전히 존속하였고, 영어는 일반 대중의 일상어로 그 명맥을 유지하였다. 당시 이들 세 언어가 섞여서 쓰이고 있었다는 것은 *kingly* 라는 어휘에서 엿볼 수 있다. 앵글로-색슨족은 이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king* 에서 만든 단어 하나만을 썼는데, 노르만인이 영국을 정복한 이후에는 *royal-regal-sovereign* 이란 세 개의 동의어가 영어에 들어와 쓰였다. 서너 개의 미묘한 의미의 차이를 나타내는 능력이 생기게 된 것이라든가, *rise-mount-ascend, time-age-epoch, ask-question-interrogate* 등과 같이 영어·프랑스어·라틴어의 공존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이 시기의 영어가 지닌 특징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어는 영국의 지배계급 언어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영어는 프랑스어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도 일반 대중들에 의해 끊임없이 사용되고 있었다. 영어가 프랑스어에 흡수되지 않고 영국인의 국어로 다시 살아남게 된 데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노르만정복 이전에 쓰이던 고대영어는 문어체인 구어체 이진간에 짜임새있고 힘차며, 더욱이 스칸디나비아어와의 혼합으로 표현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 없었다. 영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우선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실제로 영국인들은 외국인에게 정복을 당한 경험을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쓰지 않고 쉽게 버리려 하지 않았다.

둘째, 노르만정복 직후 노르만인이 영국인과 결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영어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노르만인

(8) 11세기초에 씌어진 고대영어 사본

ic ne aþpe þu pp. forðan þe ic pýlppilla com aþfæge
halge. ne ic þam hafnum goorn lænnege ofþfuge.
forðan þe ic on aþfæge geþe. þa hæf we aþfæga flaccu. þa
þannan geþungan on þi geþe pullu cþuþuþe. 7ep.
þman ne pædole. 8inge biglaþan hæf don binnon þro
pon nithon. Hæf punoðe þa þa pæpennitha mæclæp.

(=ne hæfð 'has not').

13) 고대영어의 어순은 현대영어의 어순과 일반적으로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으나, 현대영어의 어순에 비해 덜 고정되어 있었으며 SVO, SO(C)V, VSO(C)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산문에는 어순이 비교적 고정되어 쓰였으나, 시에서는 어순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이 쓰였다. 어순이 도치되는 경우의 예로는 þa, pær 등과 같은 부사가 문두에 오는 경우, 특히 þa가 오는 경우에 많이 나타났다. þa rinde hit, and pær cōmon flōd 'Then it rained, and there came flood'. 시에서 문체상의 목적으로 강조할 경우에도 어순의 도치가 쓰였다. Åhte ic fela wintra folgað tilne 'I kept a good office for many years'.

14) 고대영어는 하나의 절을 다른 절에 종속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하나로 병렬법(parataxis)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 방법은 등위접속사 이외의 다른 접속사를 쓰지 않고, 절을 병렬시켜 만든 구문으로서 특히 시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We geāscodan Eormanarices
wyrfenne gepōht æhte wīde folc
Gotena rices þæt wæs grim cýning

'We heard of Eormanaric's wolfish thought; he rules the nations widely of the kingdom of Goths; that was a grim king.'

3. 중세영어

1066년 노르만디의 공작인 윌리엄(William)이, 당시 영국의 색슨 왕인 헤럴드(Harold)가 이끄는 영국군을 헤이스팅스전투(Battle of Hastings)에서 무찌른 대사건인 노르만정복으로 시작되는 중세영어 시기는, 고대영어시기와는 달리 영국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앵글로-색슨족의 언어인 영어의 모든 분야——철자, 발음, 어휘의 의미, 문법 등——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난 시기였다. 프랑스어는 지배계급인 노르만인의 언어가 되었고, 영어는 일반 서민대중의 언어로 전락했으며, 대부분의 문학작품은 프랑스어나 라틴어로 씌어졌을 뿐만 아니라 영어로 씌어진 것은 매우 드물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영어는 영국에서 없어지지 않았다. 실제로 대다수 영국인들은 영어를 사용하였으며, 점차로 영어는 말(speech)과 문학작품에서 빈번히 쓰이기 시작하였다. 1250년에 이르러 영어로 된 공문서가 자주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수많은 프랑스어 차용어가 영어와 함께 쓰이게 되었다.

고대영어시기의 굴절체계가 크게 단순화되는 때도 중세영어시기이다. 이 장에서는 노르만정복으로 시작되는 중세영어시기에 일어난 언어변화와 이 시기의 주요 방언과 특징, 그리고 현대표준영어의 성립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문장에서 지니는 기능을 나타내는 데 쓰였다.

2) 형용사는 그가 수식하는 명사의 격·수·성에 일치하여 어미 변화를 하였다. 또한 한정성(definiteness)을 나타내기 위해 강변화 와 약변화를 하였다. *gōd mann* 'good man', *sē gōda mann* 'the good man'.

3) 수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데 쓰이거나, 속격으로 쓰인 단어의 명사로도 쓰였다. *þrītig scyllingas* 'thirty shillings', *þrītig riht-wītra* 'thirty of righteous men'.

4) 고대영어는 현대영어에서 전치사구(*of*-phrase)를 필요로 하는 문맥의 경우에 속격굴절을 사용하였다. *ðæs īglandes mīcel dæl* 'that island's great dæl' (= a great deal of the island).

5) 고대영어에는 관사(*article*)가 없었다. 그 대신, 지시사인 *se* 'that' 또는 *pes* 'this'가 흔히 쓰였으며, 부정관사를 써야 할 경우에는 수사인 *an* 'one' 또는 *sum* 'some'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지시사나 수사는 현대영어의 정관사나 부정관사보다도 더 강한 뜻을 지니고 쓰였다. 따라서 현대영어에서 관사를 써야 할 경우라 할지라도 고대영어에서는 어떠한 단어도 전혀 쓰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6) 고대영어는 두 가지 시제(현재와 과거)를 지니고 있었으며, 미래시제는 현재시제로, 과거형은 현재완료와 과거완료의 의미를 나타냈다. 따라서 고대영어는 이 두 시제를 통해 현대영어보다도 더 넓은 의미를 표현하였다. 현대영어에서 동사구로 표현하는 뜻의 위양스를 나타내기 위해 고대영어에서는 흔히 부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He had come*은 고대영어로는 *Hæ æt cōm* 'He earlier came'의 의미를 나타냈다.

7) 고대영어에서는 현대영어에서와 같이 동사구의 수동형을 사용하였으나, 오늘날과는 달리 단순부정형이 수동의 의미로 쓰였다. 예컨대, *Heo heht hine læran* 'She ordered him to be

taught'에서 *læran*은 문자 그대로 'to teach'의 의미를 가진 부정사이다. 현대영어에 쓰인 수동형에 대한 고대영어의 또 다른 표현으로는 부정대명사 *man* 'one'이 있었다. *Him man sæde* *þæt hi hæðene wæron* 'He was told that they were heathen', *Hme man hēng* 'Him one hanged' (= He was hanged).

8) 가정법은 현대영어에서보다 고대영어에서 더 많이 쓰였다. 예를 들어, 현대영어에서 가정법을 요구하지 않는 동사 다음에서도 가정법이 사용되었다. *Sume men cweðap* *ðæt hit sý feaxede steorra* 'Some men say that it be a long-haired star'.

9) 고대영어에는 주어 없이 사용된 비인칭동사가 많았다. *Mæ lyst rædan* '[It] pleases me to read', *Swā mē pyncp* 'So [it] seems to me', *swā him selfum ðuhte* 'as [it] seemed to himself'.

10) 고대영어 동사의 주어가 함축된 경우, 특히 주어가 쓰인 절(*clause*) 다음에 오면 생략될 수 있었다. *Hæ þe æt sunde oferflæt, hæfde mære* 'He outstripped you at swimming, [he] had more strength'.

11) 한편, 고대영어 동사의 주어는 두 번 나타날 수 있는데, 한 번은 문 구조의 적절한 곳에서 대명사로 쓰이고, 또 한 번은 실행하는 구 또는 절에 쓰였다. *And þa þe þær to lāfe wæron, hi cōmon tō þæs carcernes dura* 'And those that were there as survivors, they came to that prison's door'. 이 구문은 현대영어에도 쓰이나, 세련되지 못한 문장으로 생각되는 반면, 고대영어에는 흔히 쓰였다.

12) 고대영어에서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 *ne*는 현대영어와는 달리, 수식하는 동사 앞에 와서 쓰였다. *Ic ne dyde* 'I not did' (= I did not). 따라서 뒤에 오는 동사와 합쳐져서 축약된 형태로도 흔히 쓰였다. *nis* (= *ne* is 'is not'), *nille* (= *ne* wille 'will not'), *næf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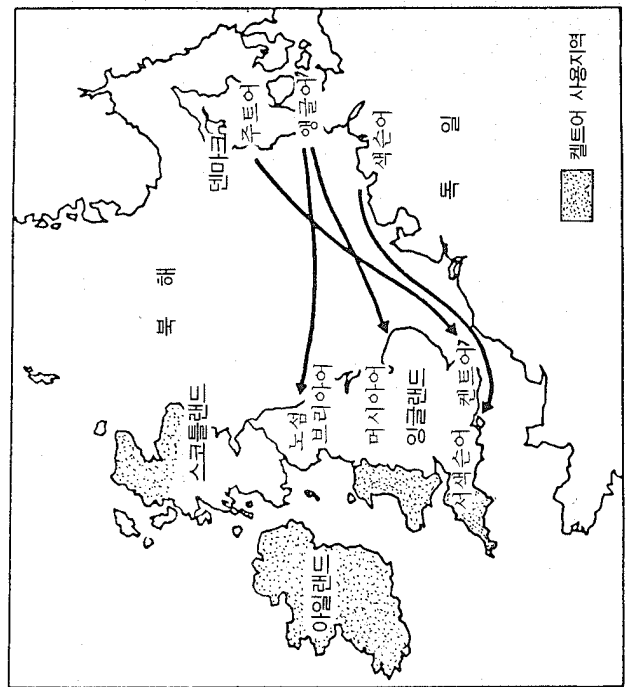
cf. *ne dæd* *ne fō*

2.3. 고대영어의 방언

앵글로-색슨시대의 영국 즉, 고대영어시기에는 네 개의 중요한 방언이 사용되었다. 이를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노섬브리아 방언(Northumbrian dialect): 험버강 이북에서 사용됨.
- 2) 머시아 방언(Mercian dialect): 웨일스를 제외한 템스강에서부터 험버강 사이에서 사용됨.
- 3) 서색슨 방언(West Saxon dialect): 켄트를 제외한 템스강 이남 지역에서 사용됨.
- 4) 켄트 방언(Kentish dialect): 켄트에 정착한 주트족의 언어.

(7) 고대영어 방언의 기원과 분포



노섬브리아 방언과 머시아 방언은 템스강 이북의 방언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주로 앵글족이었으므로, 이 두 방언을 앵글리아 방언(Anglian dialect)으로 부르기도 한다.

네 개의 주요 방언 가운데서 오늘날 전해내려오는 고대영어 문헌은 서색슨 방언으로 기록된 글이 대부분이다. 앵글리아 방언과 켄트 방언으로 씌어진 기록은 매우 드물다. 알프레드(Alfred)왕시대(871~899)와 그후 오랫동안 웨섹스의 수도이며 어느 의미에서는 당시 전영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던 윈체스터(Winchester)가 알프레드왕 자신의 학문장려 덕분에 영국문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당시 런던도 번창하고 있던 상업도시이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윈체스터만큼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요성을 갖지는 못하였다. 당시에는 방언의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서색슨 방언으로 된 문헌을 연구할 때 큰 불편을 느낄 수 없었다. 그 예로, 앵글리아 방언으로 쓰인 ald 는 서색슨 방언에서는 eald 였으나, 현대 영어에서는 old 로 규칙적으로 발달하여온 점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인 엘프릭(Ælfric)은 서색슨 방언으로 된 많은 산문을 썼으며, 알프레드왕 자신은 오로시우스(Orosius)의 《세계사》, 보에티우스(Boethius)의 《철학의 위안》을 영어로 번역하였다. 교황 그레고리(Gregory)의 《사목지침서》(Pastoral Care)나, 라틴어로 된 비드의 《영국민 교회사》의 영역도 알프레드왕의 통치기간에 이루어진 것들이다.

2.4. 고대영어와 현대영어의 차이

고대영어의 철자와 음운에 대해서는 위에서 그 특징을 이미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서는 고대영어와 현대영어의 구문상의 차이를 요약하여 정리해보기로 한다.

- 1) 고대영어의 명사·형용사나 대부분의 대명사는 현대영어보다 격에 따른 풍부한 굴절을 지니고 있었다. 이 굴절형태는 단어가

ng로 나타나는 철자는 [ŋg]로 발음되었는데, 고대영어의 [ŋ]은 오늘날 사용되는 영어에서처럼 독립된 하나의 음소가 아니라 /n/의 변이음으로 쓰였다. 그러나 ng 다음에 e가 오는 경우에는 [ndʒ]로 발음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ngel 'angel', sengan 'singe'.

h란 문자는 오늘날에 쓰이는 소리보다도 한층 더 강한 음을 표지하기 위해 쓰였다. 음절의 처음 위치에 오면 [h]로 발음되는 것은 오늘날의 경우와 똑같으나, 다른 위치에 오면 인접한 모음에 따라 [x](dohtor 'daughter', heah 'high')로 발음되거나, 또는 [ç](riht 'right', niht 'night')로 발음되었으며, 이 세 음([h], [x], [ç])은 모두 한 음소에 속하는 변이음들이었다.

r이란 문자 또한 오늘날에 쓰이는 소리보다도 훨씬 더 힘있게 조음되었는데, 고대영어의 [r]은 혀끝을 잇몸에 대고 계속해서 빠르게 두드려서 내는 설전음으로, 현대영어(특히 영국영어)에서와는 달리 모든 위치에서 강하게 발음되었다. 한편, 이중자음은 현대영어와는 달리 두 번 되풀이해서 발음되었다. sunne 'sun', beginnan 'begin'.

f, s, p/ð 등과 같은 네 개의 자음은 모두 마찰음들인데, 모음 사이에 오거나 모음과 유성음 사이에 오면 [v, z, ð]로 발음되었다. heofon 'heaven', cēosan 'choose', ōþer 'other', hræfn 'raven'.

고대영어의 문법체계는 현재의 독일어나 라틴어와 유사한 체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원시게르만어의 체계를 어느 정도 간소화하는 작업을 이루어놓았다. 고대영어는 굴절체계를 크게 활용했으며 상당한 정도 문법성(grammatical gender)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고대영어의 명사는 주격·대격·속격·여격 등 네 개의 격(case)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대부분의 명사가 서너 개의 커다란 어미변

화(declension)에 속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흔히 사용하는 어미변화의 수는 점차로 감소하고 있다. 형용사는 고대영어시기에 상당히 복잡한 굴절형을 지니고 있었는데, 비교를 나타내는 굴절형 이외에 강변화형과 약변화형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인칭대명사 또한 인칭·격·수에 따르는 복잡한 굴절형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대영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른바 '양수'(dual number)라는 것이 있어서, 1인칭에서는 '우리 둘'을 가리키는 wit 'we two'와 2인칭의 git 'ye two'라는 형태가 있었다.

고대영어의 동사체계는 현대영어의 동사와 비교해볼 때 상당히 복잡하다. 게르만어의 동사가 지닌 특징을 그대로 물려받은 고대영어의 동사는 강변화동사와 약변화동사로 구별되었으며, 현재·과거·과거분사로 이루어진 현대영어의 시제와는 달리, 현재와 과거라는 두 개의 기본시제로 이루어지고, 현재·과거단수·과거복수·과거분사 등 네 개의 복잡한 활용형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직설법과 가정법 등 두 개의 서법형(mood)과, 현재형과 같은 형태의 명령형(imperative)을 지닌 점이 특징이다. 이제 약변화동사인 deman 'judge'를 활용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직 설 법	단수 : 1인칭 dēme 2인칭 dēm(e)st 3인칭 dēm(e)p		
	복수 : demap		
직설법과거	단수 : 1인칭 dēme 2인칭 dēmdest 3인칭 dēme		
	복수 : demdon		
가정법현재	단수 dēme; 복수 dēmen		
가정법과거	단수 dēme; 복수 dēmden		
명 령 법	단수 dēm; 복수 demap		
여격부정사.	to dēmenne		
현재 분 사	dēmede		
과 거 분 사	dēmed		

대영어시기를 거치는 동안 이들 변이음은 두 개의 전혀 다른 음소로 변하였다. camb 'comb', cōl 'cool', cuman 'come'; cild 'child', cēosan 'choose', ceald 'cold'.

ㄴ (6) 고대영어시기에 쓰인 모음

i-short: *hīlps* 'helps', *is* 'is', *sittan* 'to sit'

long: *is* 'ice', *līf* 'life', *riðan* 'to ride'

e-short: *helpan* 'to help', *metan* 'to mete out', *ueg* 'way'

long: *hēr* 'here', *mētan* 'to meet', *spēd* 'speed'

æ-short: *cræft* 'craft', *dæg* 'day', *sæt* 'he sat'

long: *dæd* (Anglian/Kentish *dād*) 'deed', *hēlan* 'to heal'

a-short: *dagas* 'days', *faran* 'to fare', *mann* (also spelt *monn*) 'man'.

long: *āc* 'oak', *hāl* 'whole', *rād* 'he rode'

o-short: *gold* 'gold', *god* 'god', *ofer* 'over'

long: *gōd* 'good', *grōwan* 'to grow', *mōl* 'moot'

u-short: *full* 'full', *lufian* 'to love', *sumu* 'son'

long: *cū* 'cow', *fūl* 'foul', *mūs* 'mouse'

y-short: *gynīng* 'king', *fyllan* 'to fill', *goldan* 'to gild'

long: *cȳ* 'kine', *lȳtel* 'little', *mȳs* 'mice'

e-short: *beald* (Anglian *bad*) 'bold', *eald* (Anglian *ald*) 'old',

healp 'he helped'

long: *bēacen* 'beacon', *cāas* 'he chose', *ēage* 'eye'

eo-short: *feoh* 'fee', *heorot* 'hart', *sealh* 'seal'

long: *cēosan* 'to choose', *frēond* 'friend', *grēow* 'it grew'

ie-short: *bieldan* 'to embolden', *ieldra* 'elder', *scieran* 'to shear'

long: *bīrcnan* 'to beckon', *cīest* 'he chooses', *frīend* 'friends'

[k] 음은 또한 [s] 음 다음에 오면 구개음으로 변하였으며, sc로 나타나는 철자는 현대영어에 와서 [ʃ] 음으로 발전했는데, 이 발음은 고대영어 이후에 이르러 나타나게 된다. scip 'ship', biscop

'bishop', scūr 'shower'.

고대영어의 c는 현대영어의 center, city에서처럼 [s] 음으로 발음되지 않는다. 이 철자는 노르만정복 이후에 프랑스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고대영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g라는 문자는 고대영어에서 세 개의 서로 다른 변이음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 하나는 연구개폐쇄음인 [r] 음이다. gān 'go', grēne 'green'. 또 다른 하나는 어두에서 전설모음 앞에 오면 연구개마찰음인 [j] 음을 나타내었다. gif 'if', gīfre 'greedy', geom 'eager', gearð 'yard'. g는 어중이나 어말에 오면 전설모음 뒤에서 또한 [j] 음으로 쓰였다. dæg 'day', weg 'way', bodig 'body', nægl 'nail', mægden 'maiden', pleg(i)an 'play', stūgrāp 'stirrup'.

g가 모음 사이에 오면 연구개마찰음인 [r] 음으로 쓰였다. dragan 'draw', āgan 'again', boga '(archer's) bow', folgian 'follow', būgan 'bow', fugol 'bird', lagu 'law'. 이 연구개마찰음은 중세영어에 와서 반모음인 [w] 음으로 변했는데, 위에 든 데 가운데서 마지막의 두 단어는 각각 fowel과 law가 되었고, 현대영어에 와서는 fowl과 law로 되었다.

[g] 음이 중복될 경우에는 frogga 'frog', dogga 'dog'에서처럼 대개 gg로 쓰였으나, 때로는 cg라는 철자로 쓰여 frogga, dogga와 같은 철자가 나타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cg라는 철자는 [dʒ] 음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ecg 'edge', brycg 'bridge', secgan 'say'.

sc로 나타나는 철자는 본래의 발음인 [sk] 음에서 구개음화 과정을 거쳐 고대영어의 말기에 이르러서는 치경마찰음인 [ʃ] 음으로 나타나게 된다. scip 'ship', biscop 'bishop', fisc 'fish'. sc가 문자 그대로 [sk]로 발음되는 고대영어 단어의 예로는 scol 'school', Scottas 'Scots', ascian 'ask' 등이 있다.

을 발휘하기에 이르렀다.

2.2. 철자·음운·문법

5세기에 영국으로 들어온 게르만 부족들은 이미 그들 나름의 문자인 루운문자(일명 futhorc, futhork라고도 함)를 가지고 있었다. '루운'이란 말은 '신비, 비밀'이란 뜻으로, 루운문자로 새겨진 비명(epitaph)은 초기의 게르만 종족들 사이에서는 흔히 어떤 신비로운 힘을 지닌 것으로 여겨졌다.

루운문자는 처음에 스물네 개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후에 서른세 개로 늘어났으며 나무에 새겨넣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진 모가난 형태를 취하였다. 800년경 노섬브리아에서 사용된 서른세 개의 루운문자는 다음과 같다.

(5) 루운문자

f n þ R h X p h t l þ s c y 4
f u p o r c g w h n i j e p x
↑ B M P r s x x x f f f w * t x x x
t b e m l ɲ œ d a æ y ea io k s q st

고대영어 사본에는 (5)에 나타난 루운문자에서 þ, ƿ의 두 개의 문자를 빌려와 사용하고, 켈트식 로마자인 d를 변형시킨 ð, a와 e의 합자인 æ를 쓰고 있다. þ, ƿ, ð, æ는 각각 thorn, wyn, eth, ash로 읽는다. ƿ와 ð는 þegn '왕의 수행원', treowp '성실', þes '이것', mopp '나방' 등과 같이 무성음인 [h]음을 나타내는 데 쓰이고, ð는 bapian '목욕하다', þæpm '포옹하다, 물 깊이를 재다'에서처럼 유성음인 [ð]음을 나타내는 데 쓰였다. 그러나 þ, ð

의 두 기호는 유성음과 무성음의 구별을 엄격히 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þ는 p와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그후 없어지고, 그 대신 w를 쓰고 [w]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고대영어 문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대영어 특유의 문자는 루운문자에서 온 ƿ, ð, æ의 세 가지 기호이다. 고대영어에서는 j, q, v, z와 같은 기호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b, d, k는 매우 드물게 쓰였다.

고대영어 사본에 쓰인 모음으로는 a, e, i, o, u, y 여섯 개의 모음 기호와 두 개의 기호를 결합하여 만든 æ가 있었는데, 이 기호들은 모두 장음 또는 단음을 나타내는 데 쓰였다. 이중모음으로 는 ea, eo, ie 세 개가 쓰였는데, 이들의 음가는 각각 [ea], [eo], [ie]를 나타냈다. 이들 또한 장음 또는 단음의 어느쪽으로 도 쓰일 수 있었다.

모음 가운데서 y와 ƿ는 현대영어에는 쓰이지 않는 발음으로서, [y]는 독일어의 Hütte, 프랑스어의 cru의 모음과 유사하며, [y:]는 독일어 führen, 프랑스어 sûr에 나타나는 모음의 발음과 유사한 원순모음이다.

고대영어의 자음의 특색은 오늘날의 영어 자음과는 달리 어떠한 경우에도 모두 발음되며 묵음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 자음 가운데서 l, r, m, n, þ, b, t, d는 중세 라틴어에도 쓰였으며, 오늘날의 영어와 동일한 음가를 지니고 쓰였다. lar 'lore', helpan 'help', eall 'all', rāp 'rope', heard 'hard', hēr 'here', mōd 'mood', cuman 'come', sum 'some', nū 'now', sunu 'son', tūn 'town', pytt 'pit', slæpan 'sleep', bitan 'bite', ebbian 'ebb', tellan 'tell', writan 'write', bāt 'boat', duru 'door', rād 'road'.

고대영어의 [k]음은 c라는 철자로 나타냈는데, k라는 문자는 보통 쓰이지 않았다. c는 [k]나 [tʃ]의 어느 한쪽을 표시하기 위해 쓰였는데, [k]는 후설모음 앞에서, [tʃ]는 전설모음 앞에서 쓰였으며, 이 두 음은 한 음소에 속하는 변이음들이었다. 그러나, 고

지 못하였다. 120년에 황제 하드리아누스(Hadrianus)는 켈트족의 한 부족인 픽트족(Picts)의 빈번한 남침을 막기 위해 타인강(the Tyne) 하구에서 솔웨이만(Solway Firth)까지 영국을 동서로 횡단하는 성벽인 하드리아안 성벽(Hadrian Wall)을 세우고 북쪽 경계를 보호하였다.

로마인이 영국을 정복한 이후 영국에 들어온 라틴어는 켈트어와는 달리 광범위하게 퍼지지는 못하였으며 410년 이후 기울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라틴어는 나중에 기독교가 영국에 전파됨에 따라 더욱 활발해져서 고대영어 안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라틴어가 남긴 흔적은 오늘날 영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street, camp, wall, pound, cup, butter, Chester, church, disciple, hymn, psalm 등 수없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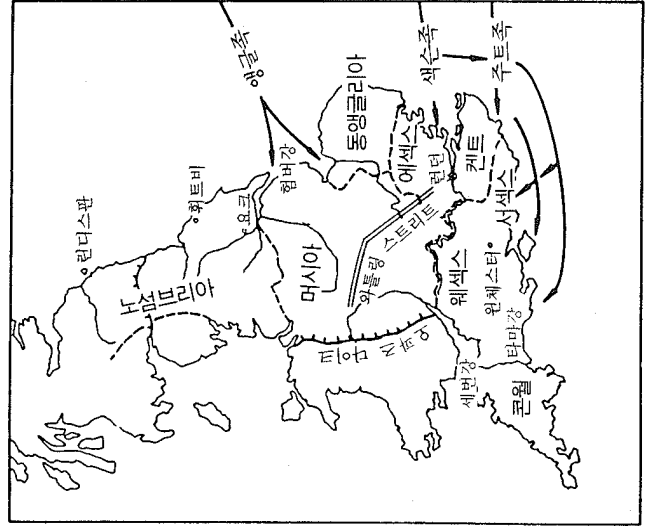
게르만족이 영국을 침략한 사실(historical fact)에 관해서는 731년에 완성된 라틴어로 씌어진 비드(Bede)의 《영국민 교회사》(Ecclesiastical History of the English Nation)에서 엿볼 수 있다. 410년에 로마의 황제인 호노리우스(Honorius)가 자국의 군대를 영국에서 철수하자, 이 섬의 켈트족은 무방비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북쪽 스코틀랜드지방의 픽트족과 서쪽 아일랜드지방의 스코트족(Scots)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된 켈트족의 왕(즉, 브리튼 왕)인 보티건(Vortigern)은 이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대륙의 게르만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이에 따라 449년 오늘날 덴마크 북부지방인 주틀랜드반도 북쪽 해안에 살던 주트족(Jutes)의 헵기스트(Hengist)와 호사(Horsa) 형제가 제일 처음 영국에 상륙하였으니, 바로 고대영어의 역사시대가 시작되는 시기인 것이다.

주트족에 이어 477년에는 색슨족(Saxons)이, 그리고 547년에는 앵글족(Angles)이 영국에 들어왔으며, 대륙에서 온 이들 게르만족은 6세기말(597년) 성 어거스틴(St. Augustine)이 영국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 로마에서 파견되어 도착하기도 전에 영국의 거의

전역을 차지하고 켈트족을 점령해버렸다. 켈트족과 게르만족간에는 많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더왕과 원탁의 기사들〉에 관한 전설도 이 전쟁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주트족·색슨족, 그리고 앵글족의 세 부족들은 그후 노섬브리아(Northumbria)·머시아(Mercia)·동앵글리아(East Anglia)·켄트(Kent)·에섹스(Essex)·서섹스(Sussex)·웨섹스(Wessex)라는 7왕국을 건설하였는데, 이것이 흔히 말하는 고대영어시기의 7왕국(Anglo-Saxon heptarchy)이다. 이들 일곱 왕국 가운데서 7세기에 문학과 학문에서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낸 것이 노섬브리아였고, 그 다음 8세기에는 머시아왕국이 주도권을 장악한 적이 있으며, 9세기에 이르러 마침내 웨섹스왕국이 고도의 번영과 확고한 지도력

(4) 고대영어시기의 7왕국



다음절에서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세계트리어와 인도유럽어에 속하는 영어의 옛 모습을 고대영어에서 현대영어에 이르기까지 몇 단계로 나누어 각 시기의 성립배경과 그 특징,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언어학적인 사실들을 자세히 살펴볼게 될 것이다.

2. 고대영어

2.1. 고대영어의 성립

선사시대의 영국에 대해서는 기록된 문헌이 없으므로 충분히 알려지지 않다. 그러나 영국이 유럽대륙과 이어져 있던 5만 년 전 이전에 이미 혈거수렵생활을 하던 원주민이 있었다고 전해지나, 이들은 빙하시기에 없어졌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영국 최초의 주민은 아마도 구석기 인으로, 영국이 유럽대륙의 일부였던 당시 이 지역에 등장하여 동물에서 생활하면서 야생식물을 먹고 풍부한 물고기와 사냥을 하며 생활하였다. 이들은 긴 두개골(long-skulls)을 지니고 무기와 도구 겸용으로 부싯돌을 사용하고 가축을 길렀다. 긴 두개골을 지닌 점으로 보아 지중해나 아프리카, 아시아지역에서 온 비인도유럽민족(non-Indo-Europeans)임이 분명하였다.

이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오늘날 전혀 알 길이 없다. 이들 선주민들은 그후 청동기시대로부터 철기시대 초기(BC 6~4세기)에 걸쳐 대륙에서 침입한 둥근머리(round-heads)를 가진 인종 즉, 인도유럽민족인 켈트인(Celts)에 의해 기원전 2000년에서 1400년 사이에 정복된다. 이 시기의 영국은 청동기시대가 시작된 직후였으므로 켈트인은 주석과 구리의 합금인 청동을 사용하였다. 콘월(Cornwall)지역에는 주석이 풍부하였기 때문에 이 금속이 켈트인에게는 매우 유용하였던 것이다.

켈트인은 누구였을까? 그리스인은 Keltori, 로마인은 Celtae라

고 부른 이들은 원래 다뉴브강 유역, 현재의 북부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의 일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갈리아(Gallia)지방과 알프스 북부에 이르는 지역에 살던 호전적인 야만인들로서 전쟁을 즐겨하였고 일부다처제를 유지하였다. 이들은 부족 중심의 사회체제를 이루고, 각 부족단위로 싸움이 항상 계속되어 강인한 부족사회를 형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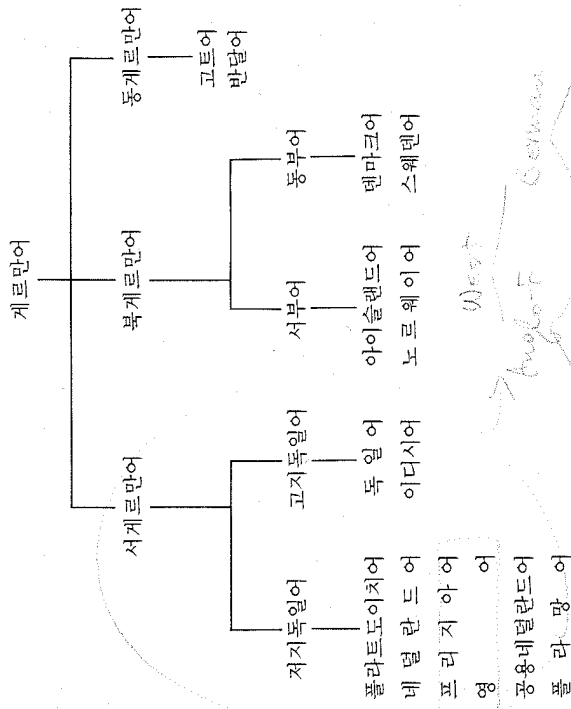
켈트인의 생활양식에 관한 가장 정확한 문헌은 시저(Julius Caesar)가 쓴 갈리아정복에 관한 기록인 《갈리아전기》(BC 55)이다. 그는 이 전기에서 갈리아(오늘날의 프랑스)지방과 브리튼(오늘날의 영국)섬의 정복과정과, 당시 브리튼섬에 거주하던 켈트인의 생활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켈트인은 국가의식이나 정치적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부족끼리 뭉쳐서 살고 있었으므로 국가보다는 가족이 사회생활의 단위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켈트어(Celtic)는 영국(즉, 브리튼)에서 사용된 최초의 인도유럽어였으며 오늘날까지도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예를 들면, London, Leeds 등과 같은 도시이름이 켈트어에서 들어왔고, 강 이름에도 켈트어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Avon, Ouse, Thames, Trent 등과 같은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county)를 가리키는 Kent, Devon은 켈트어인데, Cornwall, Cumberland는 앞부분만이 켈트어에서 왔다.

기원전 55년에서 기원전 54년에 시저가 영국의 정복에 끝내 성공하지 못한 채 거의 1세기가 지난 43년에 비로소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Claudius)에 의해 영국은 완전히 로마에게 정복당하였다. 로마제국의 영국 통치는 410년경까지 약 4세기 동안 계속 되는데, 이 시기의 영국을 '로마화한 영국'(Roman Britain)이라고 부른다. 영국의 남부와 중부는 로마제국의 일부로 완전히 로마화하였으나, 북부의 스코틀랜드지방과 웨일스지방은 로마군에 의해 점령되

Long-skulls > round-heads > Roman 43 > Anglo-Saxons BC 43-410
Celts
BC 5000-1600

(3) 게르만어에 속하는 언어들



(Yiddish)는 문자로 된 기록이 현존하는 고대고지독일어에서 발전해온 언어들이다. 영어를 포함하여 이 언어들은 모두 서게르만어에 속한다.

북유럽지역인 스칸디나비아지역의 여러 언어들, 예컨대 덴마크어·스웨덴어·노르웨이어·아이슬란드어는 영어보다는 그들 서로 간에 더욱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것은 북게르만어라는 공통기어(basic language)에서 발전해내려온 것이다. 고트어(Gothic)는 340년경에 울필라(Wulfila) 주교가 번역한 성경의 일부로 우리에게 비로소 알려진 언어로서 동게르만어에 속한다. 이 언어로 번역된 성경의 일부는 언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 성경의 일부야말로 스칸디나비아에서 볼 수 있던 루운문자(runes)로 된 비문(epitaph)이나 명각(inscription)을 제외하고 게르만어로 된 최초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 (2) a. 고대영어(450~1100) 5c-11c
b. 중세영어(1100~1500) 12c-15c
c. 초기 현대영어(1500~1800) 16c-18c
d. 현대영어(1800~현재) 19c-

1.2. 인도유럽어와 영어

영어는 이른바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는 언어들 가운데 하나이다. 인도유럽어는 유럽과 인도에 산재한 대부분의 언어가 역사상 하나의 공통기원을 지니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인데,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는 모든 언어의 근원이 되었다고 여겨지는 조어(proto language)인 원시인도유럽어에 대한 기록이나 문헌은 현재 남아 있지 않아 그 모습을 알 수는 없다. 다만, 원시인도유럽어에서 내려왔다고 생각되는 여러 언어들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원시인도유럽어의 대체적인 모습을 재구(reconstruction)할 수 있을 따름이다.

영어는 인도유럽어족의 한 어군인 게르만어군에 속한다. 게르만어군에 속하는 언어들은 원시게르만어 또는 공통게르만어에서 현재 유럽에서 쓰이는 모든 게르만어에 속하는 언어들이 파생해내려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르만어는 다시 북게르만어·동게르만어·서게르만어라는 세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게르만어군에 속하는 언어들을 광범위하게 비교해 보면 영어는 프리지아어(Frisian), 네덜란드어(Dutch), 플라망어(Flemish), 그리고 저지독일어(Low German, Plattdeutsch)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언어인 공용 네덜란드어(Afrikaans)는 17세기에 남아프리카의 네덜란드어에서 발달한 언어로 이 언어 역시 저지독일어 또는 저지 서게르만어에서 발전해 내려온 것이다. 현대 독일어, 더 정확히 말해 현대고지독일어나 그 아류인 이디시어

is this, that even the winds and sea obey him?

- d. And the men marvelled, saying, What sort of man is this, that even winds and sea obey him?

(1a)는 노르만인의 정복(Norman Conquest) 전까지 거슬러올라가서 약 1천 년경에 씌어진 문서에 기록된 구절이다. 이 구절을 보면 *gewisslice* 'truly', *cwædon* 'saying', *ðes* 'this', *sæ* 'sea', *hyrsumiæp* 'obey' 등과 같은 우리에게 낯선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읽고 이해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1b)는 성경(신·구약 포함)을 영어로 번역한 최초의 인물인 위클리프(John Wycliffe)가 표기한 구절이다. 그는 1384년에 죽었으므로 아마도 그의 생애의 마지막 몇 년 동안에 이 성경을 번역했던 것 같다.

이 구절에 나오는 철자들은 아직도 현대영어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우리가 현재 쓰는 것과는 매우 다른 발음을 보여준다. (1c)는 1611년에 번역된 유명한 흄정역(authorized version) 성서에 나오는 구절인데, 20세기 영어와 전혀 다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1d)는 1946년에 개정된 표준성경판에 나오는 구절로서 현대영어와 별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1a)는 고대영어, (1b)는 중세영어, (1c)는 초기 현대영어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영어사는 단순한 문자나 어법의 변화가 아니라 음운·어휘·문법·의미체계 등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체계상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맺으면서 발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어사를 기술하는 데서는 영어 외적인 요소에 지배되어서는 안된다. 영어사는 어디까지나 영어 자체의 체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왕조사나 정치·사회변천사가 역사 기술에 지나치게 관여해서는 안된다.

영어사는 통시적인 연구가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공시적인 연구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영어사 연구는 종적 횡적인 연

구가 아울러 병행되어야 함도 잊어서는 안될 일이다.

1.1. 영어사의 시대구분

위에서 인용한 (1a)부터 (1d)까지의 구절을 살펴보면 지난 1천여 년 동안 영어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단어가 나타났는가 하면, 써서 남아빠진 단어들은 없어져 버렸다. 단어의 의미도 변했다. 문법적인 기능을 갖는 단어의 의미 또한 변했다. (1c)와 (1d) 사이에는 350년이란 긴 기간이 있지만, 이들간의 차이점은 불과 225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1b)와 (1c)간의 차이만도 못하다. 위클리프와 노르만정복 이전에 쓰인 구절 사이의 차이점 또한 대단히 크다.

영어사를 기술하는데 어떻게 시대를 구분하여 영어사를 체계적으로 논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역사라는 것은 흐르는 강물처럼 부단한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어는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영어 자체가 독자적인 변천을 해온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문화적인 여러 요소와 함께 복합적인 변천을 해오면서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영어의 발달과정은 정치·사회·문화적인 사건이나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시대구분을 하는 것이 통례이다. 예컨대, 앵글로-색슨족이 영국에 들어온 5세기 중엽인 449년을 기준으로 하여 노르만족이 영국을 정복한 11세기 중엽인 1066년을 전후한 시기에 영어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시기를 고대영어시기로 구분하는 것이 그 한 예이다.

대체로, 영어의 역사는 편의상 고대(450~1100)·중세(1100~1500)·현대(1500~) 영어라는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서술의 편의상 다음과 같이 영어사의 시대구분을 네 단계로 나누어서 기술하고자 한다.

제 7 장 영어의 역사

1. 영어사란 ?

영어사란 영어의 음운·어휘·문법·의미 등의 변천을 기술한 영어의 역사를 말한다. 따라서 영어사의 연구는 영어의 계통과 형성을 밝히고, 음운이나 어휘·문법·의미 등의 통시적인 변천을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학문이다.

세계의 모든 언어는 각기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역사적 변화 속에서 형성된 것이며, 따라서 영어도 영어사용 민족의 역사적 변천의 결과로 형성된 것이다.

서로 다른 시기에 쓰여진 영어의 문헌을 살펴보면, 과거 수천 년 동안에 영어가 변천해온 정도를 알 수 있고, 오늘의 영어와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 한 예로 <마태복음> 8장 27절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해보기로 한다.

(1) a. Gewisslice þa men wundroden, and ðus cwædon,

Hwaet is ðes, ðæt windas and sæ him hyrsumiaþ ?

b. Forsothe the men wondreden, sayinge, what manere

man is he, for the wyndis and the see obeishen to hym ?

c. But the men marvelled, saying, what manner of man

de

Wycliffe (14c)

Wycliffe (1611)